

科學技術의 振興은

先進科學技術 消化로



朴 忠 勳
韓國貿易協會長

오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와 在獨韓國科學技術者協會의 共同主催로 科學技術의 最高殿堂인 이곳에서 科學技術綜合심포지움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勞苦를 함께 하여주시는 政府要路와 關係者 여러분께 民間經濟團體를 代表해서 衷心으로 致賀하여 마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直接 祖國의 近代化에 寄與코자 이 모임에 參加하여 주신 在歐 科學技術者 여러분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에서 急速한 產業發展을 통한 祖國近代化의 課業을 推進하여 온지도 10餘年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世界 거의 모든 地域에 우리의 商品을 輸出하게 되었으며, 產業의 基盤은 어느 程度 다져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바야흐로 치열한 國際競爭의 隊列속에서 우리의 힘을 가름해야 되는 處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80年代를 맞는 우리의 經濟는 重化學工業의 建設과 輸出의 劃期的인 伸長을 兩大軸으로 하여 自立經濟를 이룩하고자 하는 至上課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 싶이 오늘날 科學技術의 進涉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速度로 나아가고 있으며 最近 여러 先進工業國들이 이 分野에서 이룩한 놀라운 發展은 國民經濟와 世界經濟에 커다란 構造的 變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激動하는 世界的 흐름속에서 蓄積된 技術도 없고 蓄積된 資本도 없으며 狹小한 國土와 貧弱한 資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科學技術의 振興이야말로 바로 經濟의 自立과 祖國의 近代化를 促進하고 先導하는 發展의 요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產業發展의 原動力인 科學技術分野에서 오랜동안 研究를 쌓고 技術을 研磨하여 可謂 最高水準에 到達한 여러 國內外 科學徒가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쌓아온 知識을 發表 討論하고 產業視察을 통하여 當面하고 있는 여러가지 國內產業의 課題들을 여러 角度에서 評價·綜合할 機會를 갖는다는 것은 時宜에 맞는 일이며 우리 經濟界로서는 曠多幸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異域萬里에서 온갖 어려움과 서러움을 인내하고 刻苦勤勉하여 훌륭한 研究業績을 쌓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뵈고 보니 여러분의 뛰어난 頭腦와 力量을 가지고 直接 우리 經濟를 위하여 많은 參考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國家經濟自立의 길

技術集約 産業化 돼야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健在하고 있는 이상 여러 다른 開發途上國家와 달리 우리의 앞날도 그렇게 어둡지만 않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끼며 이것은 비단 本人만의 생각은 아니라 믿읍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 經濟가 追求해온 輸出主導型 經濟는 單純한 加工主導型 産業構造였으며 産業構造의 高度化란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이 거의 全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昨今 石油와 資源波動, 世界的인 인플레이션과 景氣後退는 우리 經濟에 많은 問題點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世界 各國이 保護貿易主義를 採擇하고 加工製品의 交易條件이 惡化一路에 있는 지금 技術集約産業에로의 移行은 이의 克服手段으로 切實히 要請되고 있는 實情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10달러 어치의 輸出에서 겨우 5달러 내지 6달러의 가득액을 올리는 지금의 輸出體制를 벗어나 數10倍, 數百倍의 稼得率을 노리는 重化學工業 또는 技術集約的 輸出體制로 移行해야 할 段階가 온 것입니다. 말할것도 없이 이같은 輸出産業構造의 變革이나 製品의 高級化 또는 技術集約化는 頭腦開發을 통한 科學技術의 國產化가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絶對로 不可能한 것입니다.

이러한 國內外的 經濟與件을 勘案할 때 여러분들의 健在함은 國家的인 긍지인 동시에 여러분들의 任務 또한 重且大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經濟는 過去 어느때 보다 여러분과 같은 뛰어난 頭腦와 力量을 갖추신 분들을 切實히 그리고 時急하게 要請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憲法에도 科學技術의 重要性和 그 暢達振興을 明示하고 있으며 政府는 10餘年間 여러분들이 祖國에 돌아와서 各自의 研究를 繼續할수 있도록 研究雰圍氣造成에 많은 配慮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實際로 우리 實業人들도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産業界를 위하여 작은 크든 어떠한 일이라도 寄與하고자 할때 힘자라는 데까지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을 約速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포지움에서 참가자 여러분은 우리 經濟에 대한 진지한 討論과 正確한 診斷을 내려 韓國經濟 雄飛의 길을 提示하는 결실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